

現代의 思惟와 人間 理念

人間 解釋의 現實態度(6)

金基錫

進化論에 있어서 人間은 단순히 한 개의 生物로 規定또 發見된다. 人間은 물론 그 자신 한 개의 生物이 되고 또 그 속에 『生物的인 것』을 가진다. 그러나 그러타고 하여 人間の 實存은 이 生物主義에 있어서 解釋되야 마치는 것도 아니고 또 解釋되야 마칠수 잇는 것도 아니다. 生存競爭, 自然淘汰를 高調하는 오늘의 進化論은 그런대로라도 生物의 世界에 대한 한 개客觀的 解釋의 意味를 가진다. 그런데 이 進化論이 生物의 世界에서 차츰 見解를 옮기여 人間の 現實存在를 說明할 때 進化論은 만흔 獨斷과 迷妄에 沒陷한다. 進化論에 따라 人間을 단순한 生物로 規定하고 生存競爭, 自然淘汰를 人間の 世界의 基本 原理로 내어세워 보라. 이 사나운 殺伐만이 持續된다고 하면, 人間은 眞實한 意味의 社會와 歷史를 가질 길이 업고 또 가져 서는 못 쓰게 된다.

進化論은 人間에 있어서 그 『生物的인 것』을 說明하면서 아직 그 『社會的인 것』을 把握하지 못하고 있다. 人間은 勝義에 있어서 본대 社會的 存在가 된다. 人間の 『生物的인 것』은 정히 이 『社會的인 것』에로 자기를 止揚시켜야한다. 人間の 實存은 生物性이 아니라, 社會性에 있어서 그 자신의 根源的 規定에 만난다.

人間은 물론 한 개生物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타고 해서 한 개의 단순한 生物 또는 그 世界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人間은 生物이기 전에 또 生物인 까닭으로 해서 生物의 根底로서의 物質이 되기도 한다. 人間은 物質이 기전에 또 物質인 까닭으로 해서 物質의 基底로서의 時間이되기도 한다. 人間은 時間이기 전에 또 時間인 까닭으로 해서 時間의 基底로서의 無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누가 現實 人間을 가르쳐 無라고 하고, 時間이라 고하고, 物質이라고 하는가. 人類의 起源은 실상 進化論에서 가르치는 대로 처음에 어떤 微生物에 잇섯고 거기에서 植物이 갈려 나왔고 植物에서 動物이 갈려 나왔고 이제 이 物動이 다시 만흔 階段을 지나 나중엔 猿숭이를 거쳐 마침내

人類에 까지이 르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들이 現實存在로서의 人間을
물한 망울, 풀 한 포기, 비둘기 하나 원숭이 하나와 混同하는 일이 잇는가.
(完)